

사회의학		번호: III - C - 2			
제 목	국문	한국에서 경제위기가 원인별 사망률에 미친 영향			
	영문	The impact of economic crisis on cause-specific mortality in Korea			
저 자 및 소 속	국문	박정한, 임부돌, 신임희 <sup>2)</sup> , 박순우, 이주영 <sup>1)</sup> 1)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의학통계학교실			
	영문	Jung-Han Park, Bu-Dol Lim, Im-Hee Sin <sup>2)</sup> , Soon-Woo Park, Ju-Young Lee <sup>1)</sup>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2) Department of Medical Statistic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School of Medicine			
분 야	보건관리 사회의학	발 표 자	박정한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3년 04월				
<p>1. 연구목적</p> <p>1997년의 경제위기를 전후한 우리나라의 사망률을 분석하여 주요한 경제 지표의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는 사망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분석하여 사회경제적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p> <p>2. 연구방법</p> <p>경제위기가 시작된 1997년과 이전인 1995년, 1996년, 그리고 경제위기의 영향이 지속된 1998년, 1999년, 2000년의 6년에 대해 통계청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제지표와 사망신고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경제지표로는 월별로 제시되며, 사회전체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며, 후행성 지표인 실업자수를 사용하였다. 사망자료는 사망원인을 원자료의 236항목으로 분석한 결과, 변화 경향을 관찰하기에 대상 항목의 사망자수가 적은 경우가 많아서 103항목의 일반사망 요약분류로 재분류하였다. 6년 간 사망신고 된 1,464,700명 중 사망원인이 입력되지 않은 7,655명은 제외하였고, 분류된 사망원인 중 6년 간 사망건수가 600건 미만으로 연간 평균100건 미만인 39개 항목도 분석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되어 제외하여, 나머지 총 64개 항목의 1,363,091명(6년 간 전산 입력된 전체 사망자의 93.1%)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각 연도별 전체사망률을 인구의 성-연령 분포에 대해 직접 보정하여 그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실업자수와 64개 사망원인별 사망자수의 상관관계를 보고자 월별 실업자와 사망자수를 4계절별로 묶어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월-2월)의 분기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p> <p>3. 연구결과</p> <p>1995년-2000년의 조사망률은 인구 100,000명당 524.0, 514.4, 516.6, 516.6, 524.1, 518.2로 1996년에 감소하다가 1997년 약간 증가하고 1998년 변화 없다가 1999년 크게 증가한 후 2000년 다시 감소하였으나, 인구의 성-연령 보정한 사망률은 595.4, 538.6, 524.3, 508.8, 501.2, 482.9로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였다. 실업자수는 35만-45만 명으로 유지되다가 1997년 말 증가하여 1998년 2월에서 2000년 3월까지 100만 명을 넘었다가 이후 감소되었다.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중 실업자</p>					

수와 유사하게 1997년 말과 1998년에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보인 경우는 기존의 연구에서 알려진 자살 외에도 패혈증, 영양실조, 빈혈, 정신 및 행동장애, 나머지 신경계질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 질환, 피살 등 8개 사인이 있었다. 1997년 말과 1998년 초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으나 1998년 말부터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망원인은 기존에 알려진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외에도 호흡기 결핵, 폐렴, 인플루엔자, 만성호흡기질환, 당뇨, 나머지 내분비·영양·대사성 질환,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자궁경부암 등 8개 사인이었다. 또한 자동차 사고와 같이 1997년 말을 전후하여 크게 감소한 경우는 선천성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결과로 볼 때 경제 위기는 경제적 취약계층 외에도 여성과 노인, 장년기의 경제활동인구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사망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사회 전체적 스트레스가 음주와 흡연 그리고 식사습관과 같은 국민 개인의 건강행태 외에도 가족 구성의 변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양상의 변화 등을 초래하여 국민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이어 사망자 수가 특별히 증가한 사인에 대하여 사망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경제위기에 특별히 취약한 계층이 어떤 사람들인지 찾아 볼 계획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